

기술에 온기를 더한 공간입니다

친환경과 편의 조화

크리스탈스퀘어는 서울 CBD(중앙업무지구) 중심에서 그린 스마트 빌딩의 기준을 제시하는 오피스입니다.

- '녹색건축물 최우수(그린 1등급)'와 'LEED 플래티넘'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이 건물은, 친환경 성능을 단순한 기술적 지표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 경험으로 완성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공간이 주는 해방감입니다.

- 로비와 사무 공간에 적용된 여유로운 천장은 업무 공간 특유의 밀도를 낮추고, 삼면을 채운 대형 유리 커튼월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광을 실내 깊숙이 끌어들이습니다.

이는 낮 시간대 인공조명 의존도를 효과적으로 줄이며, 쾌적함을 에너지 효율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합니다.

업무 중 잠시 1층으로 내려오면 또 하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청계천의 녹음과 수표교가 간직한 역사, 장교동 일대에 축적된 도시의 시간이 어우러진 풍경은 이곳을 단순한 업무시설이 아닌 도심 속 편의의 공간으로 확장시킵니다.

기술은 효율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끝은 결국 사람의 휴식을 향해야 한다는 철학! 크리스탈스퀘어가 '사무실'이 아닌 환경을 향유하는 공간으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공간 효율의 미학

크리스탈스퀘어의 경쟁력은 감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 건축 구조 전반에는 업무 효율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가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화장실, 설비 공간을 한쪽으로 집약한 사이드 코어(Side Core) 구조를 통해, 사무 공간 내부에는 불필요한 기둥이 배제된 탁 트인 무주(無柱) 평면이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조직 구성과 업무 방식에 따라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가능하게 하며, 시야의 개방감은 협업의 유연성과 공간 활용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형태가 기능을 압도하지 않고, 기능이 공간을 지배하지도 않는 균형 그 자체가 이 빌딩이 지닌 구조적 미학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리의 정수

오늘날 친환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기본 조건입니다.

- 크리스탈스퀘어는 자원 순환, 수자원 관리, 에너지 절감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녹색건축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으며, 2023년에는 LEED 플래티넘 인증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딩의 진정한 가치는 인증서 그 자체보다, 그 이면에 축적된 운영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에는 60% 이상 대기전력 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90% 이상 구간에는 자동 제어 조명이 설치되어 공간 사용 패턴에 따라 정밀하게 반응합니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유지관리 과정에서는 시스템 응답 속도부터 펌프 제어 로직까지 세밀하게 점검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루틴의 축적을 통해, 크리스탈스퀘어는 언제나 신뢰 가능한 에너지 효율 상태를 유지합니다.

크리스탈스퀘어는 첨단 기술, 친환경 성능,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간 철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오피스 빌딩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관리가 축적된 이 공간은, 단기적인 효율을 넘어 지속 가능한 업무 환경의 미래를 조용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